

하나님의 말씀

창조물들의 영적인 성장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4097 세상의 창조. 모세. 비유로 말하는 일.....	3
7158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5
6336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계획.....	8
2764 창조물의 근본 입자는 사랑이다.....	9
3234 힘의 원천. 창조물은 힘을 가지고 있다.....	11
4032 모든 물질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12
6727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14
1010 창조의 변화. 자연재해가 필요하다.....	16
3957 눈에 보이는 창조물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눈에 보이는 창조물에 대한 권세가 없다.....	16
0864 창조의 일. 굳은 물질. 자연환경. 식물.....	18
7098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해충들과 잡초들.....	19
2206 생성되고, 죽는 일.....	21
2513 초기 시대의 아담 이전의 인류. 책임.....	22
0716 모든 형체를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소형의 우주).....	23
8702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25
5198 혼의 입자. 이 땅과 영계의 성장과정.....	26
7214 의무 단계의 상태. 인간으로 자유한 상태.....	29
3495 영적 및 물질적 창조물.....	30
4405 물질적이고 영적인 창조물. 주민들의 활동.....	32
6634 창조물이 없는 공간.....	33
5401 성숙의 과정에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 필요하다.....	35
6766 증거가 없는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에 대한 지식.....	36
8449 여러 차례 창조물 안의 과정을 가는 일. 다양성.....	38
2834 자연의 언어. 창조와 창조주.....	39

세상의 창조. 모세. 비유로 말하는 일.

B.D. No. 4097

1947년 8월 5일

너희의 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동안에는 어떤 판단을 하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 너희의 이성이 어떤 지식을 처리해야 한다면, 너희 이성에 부담이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따라서 진리에 완전히 일치하는 지식이 끝이 없이 많다. 인간은 인간의 부족함으로 그런 지식의 일부도 파악할 수 없고, 가장 예리한 이성의 활동을 통해

서도 빛을 받을 수 없고, 그는 단지 영적인 길을 통해 그에 대한 설명을 받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그는 그의 내면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깊은 기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또는 그에게 생각의 형태로 말씀하게 해야만 한다.

한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밤보다 어두운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 순수한 진리로 깨닫고 영접한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쟁을 요구하면, 논쟁을 통해 그에게 모든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웃 사람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형태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할 사항을 받아 적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다: 세상 창조에 관한 성경 본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고, 영원한 진리인 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설명은 진리가 될 수 있다.

사람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의 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는 순수한 영적인 연관 관계를 깨닫기를 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을 모든 물질 창조의 중심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는 다른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깨달음의 정도가 증가할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깨어나게 하고, 자신의 영을 통해 인간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진장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창조는 단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선명하게 해줄 수 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상응의 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창조를 세성적인 발전으로, 즉 이 땅의 물질적 발전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은 피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한 것이다. 즉 끝없이 긴 기간이 걸리는 전체 구원 시대의 전체 인류를 위해 말한 것이다.

(1947년 8월 5일) 모세의 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적용될 수 있게 서술되었다. 모세와 같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견하는 것처럼, 모세의 말은 구원의 시대의 시작과 끝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는 그에 따라 행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인류에게 빛을 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가 표현하도록 촉구 받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이 땅이 창조된 순서를 알리기 원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일은 창조를 위해 끝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 이러 시간이 영적인 성장과 또한 이 땅의 성장과 연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항상 존재가 최종적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에 관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은 이 땅의 창조의 느린 성장과 비교해야만 하고,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성장과 같아야만 한다.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단지 이런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영적 의미대로 모세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러나 영적 성장과 물질적 성장 사이의 유사성을 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할 수 없다. 물질적 창조 과정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창조 과정의 시작은 존재의 영적 상태와 일치했다.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전의 것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알려준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모세를 통해 같은 일이 일어났다. 즉 사람들이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항상 이 땅의 창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안의 영에 의해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설명했고, 예수님께는 인간의 영적 성장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제 세상의 창조를 영적인 상응의 의미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게 했다. 영적인 상응은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보여주고, 인간이 자신의 혼을 위해 성공하기 원한다면,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유사성이다.

다른 많은 설명이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이 영의 역사를 통해 서로 다른 해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논쟁이 필요하다. 동일한 견해, 동일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확실하게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설명은 다른 설명과 일치해야만 하고, 설명이 이해하기가 더 쉽거나 더 어려울지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의 영이 위로 성장하는 일과 관련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은 또한 이해하는 일이 보장이 된다.

아멘

창조물이 생성 된 원인.

B.D. No. 7158

1958년 7월 3일

영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종류의 창조물을 가진 모든 우주
의 창조물들이 생성 된 원인이었다. 이런 창조물이 생성되기 전에는 단지 영의 나라 만
이 있었다. 이 나라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된 세계였다. 이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능력과 빛을 소유 한 가운데 그들이 정함 받은 대로 창조할 수 있었다.

이런 창조는 영적인 창조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재에게 흘러가는 생각과 아이
디어를 실제화 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이 제공되고 그들이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측량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의 축복된 상태가 절대로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들 내면에서 그들의 창조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로써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사랑의 빛의 비추임을 충만하게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제한이나 빛이 줄어드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상태가 되었다.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이고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에 의해 그들이 영원한 신성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루시퍼가 자신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생성되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받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존재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창조한 분에게 향했다. 그러나 루시퍼의 설명이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 설명이 그들에게 더 믿을 만하게 보였다. 왜냐면 루시퍼는 빛과 광채를 발산했고 그들이 루시퍼 위에 있는 존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아직 깨달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그들은 루시퍼의 설명을 의심으로 대항했다. 이제 빛이 충만한 순간이 작은 흐릿한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존재가 흐릿한 상태에 빠질수록 어두워진 생각의 상태가 더 지속되었다. 그러나 또는 존재가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빛이 충만하게 자신의 진정한 출처를 깨달았다. 루시퍼는 이런 존재들의 깨달음을 더 이상 흐릿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두워진 상태가 더 지속 된 존재들은 루시퍼의 권세 아래 들어 갔다. 그들은 루시퍼에게 속하고 루시퍼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겼다. 왜냐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전에 항상 또 다시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 충만한 순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래 초기의 줄어들지 않은 루시퍼의 능력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축복된 영의 존재들을 창조했다.

이런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로 인해 그 안에 잘못 된 자기 의식이 자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을 얻은 원천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준 능력의 증거만을 보았다. 비록 그가 이 능력이 자신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한 분에게 속하였음을 알았을 지라도 능력을 단지 자신을 위해 소유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소유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출처를 계시해주는 이 존재들 안의 빛을 흐리게 했다. 이로써 루시퍼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결정하고 이로써 빛의 전달자로서 존재들이 그들의 능력과 빛을 잃고 어둠에 빠지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축복이 줄어들게 하고 자신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하는 갈등에 빠지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과정이 영적인 종류와 물질적인 종류의 끝없는 창조물들이 생성 된 원인이었다. (1958년 7월 3일) 이런 창조물들은 단지 형태를 변화시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타락을 통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진 일을 통해 존재의 성분이 더욱 타락할 수록 항상 더 굳어지게 되었다.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항상 활발하게 일하게 하는 영의 능력이 영적인 존재들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에게 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로써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되었고 생명이 굳어졌다. 남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굳어진 성분이었다. 비록 이 성분이 원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산 된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효과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원래 영적인 존재들에게 다른 사용 목적을 부여했다. 즉 쉬지 않고 그러나 동시의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의 의지가 되어 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이 정함 받은 일과 반대로 행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시 전적으로 굳어진 자신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된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입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영적인 존재들에게 개입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입자들을 분리해 이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창조의 작품들이 생성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동시에 한때 자신으로부터 발산 된 능력을 변형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각각의 창조의 작품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이제 의무의 상태에서 성취하게 하여 분해 된 영적인 입자들이 이제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나 영의 존재로서 전에 소유했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게 강요받게 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원래 초기에 하나님이 존재로 생성되게 했고 단지 온전함의 측면에서 그의 온전함이 전적으로 바뀐 상태이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창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단지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발산한다.

그러나 이는 다시 단지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 그들의 제한이 없는 능력에서 나온 영적인 작품들이다. 이 세계는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거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곳에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제한이나 어떠한 무능력도 없다. 이런 부족함과 제한과 무능력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걸형체 안에서 일하게 강요받는 걸형체가 필요할 때 나타났고 우주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담을 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곳에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묶임을 받고 있다. 형체가 굳을수록 그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더욱 강박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

그러나 형체 자체인 물질도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를 담은 그릇으로 그가 성장하게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모든 이런 영적인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영적인 입자들이 저항을 강제로 겪게 강요하며 영적인 입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실제 창조의 작품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특정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원래의 존재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의 작품을 모든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어두움의 주인에게 다시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단계 하에 항상 행하는 일이 대부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줄어줄게 한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미 자신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일을 통해 능력을 표현하는 일이 그의 원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영의 나라에서 한 때 이뤄진 타락의 결과이다.

별들의 세계는 영원에 걸쳐서 존재할 것이다. 타락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열어주게 위해 새로운 창조물들이 항상 생성될 것이다. 귀환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까지 마

지막 강박한 영적인 존재들이 분해되고 귀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영원히 영원한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이런 창조물들이 영화되는 일이 끝날 것이다.

언젠가 다시 단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하며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영의 세계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녀들을 자신의 주변에 갖게 되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만들려고 재촉하고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을 쉬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계획.

B.D. No. 6336

1955년 8월 19일

내 구원계획은 끝 없이 긴 시간이 요구 된다. 타락한 존재들을 구원하고 한때 그들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사용했고 이 때문에 창조 된 존재들을 나처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일에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들이 스스로 전적으로 나와 반 대로 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내 형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되는 과정은 또는 다시 원래상태로 돌이키는 일은 끝 없이 긴 시간이 요구 된다. 왜냐면 정해진 질서의 법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혼란이 생기고 최종 목표에 절 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질서의 기본법칙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타락하여 온전하지 못하게 된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행할 기회를 주는 일이 단지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타락한 존재들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만 했다. 어떤 모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든,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목적에 합당한 창조물을 생각해냈다. 나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을 생성하는데 함께 일하게 했다. 그렇지라도 나는 존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만 했다. 나는 내 의지 대로 특정한 형체에 들어가서 이 형체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게 해야만 했다.

섬기는 원칙이 전 창조물을 지배한다. 왜냐면 항상 단지 내 큰 사랑을 나타내는 내 의지가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요 가운데 섬기는 일이 처음에는 필요하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스스로 섬기려는 사랑을 표현하려는 결단을 하지 않고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귀환이나 또는 다시 변화되는 일이 내 목표이고 내 목표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 가운데 섬기는 일은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이미 변화를 일으킨다. 돌이키는 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즉 처음에 가졌던 나에 대한 반발심이 줄면, 존재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되돌려주어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존재가 스스로 자신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야만 한다.

전 성장 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존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그가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는 일이 사랑의 원칙에 기초를 두게 하는 일이고 사랑으로 변화 된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는 일을 이루는 일이고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둔 목표

를 이루는 일이고 창조 된 존재가 자유의지로 내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내 자녀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끝 없이 긴 성장기간 동안 존재가 셀 수 없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 존재는 빛의 상태에서 내 거대한 구원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이 단계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단계가 그의 고난과 고통을 알게 해줄 것이고 이제 그가 최초로 온전하게 창조되었다가, 자신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졌었는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에게 내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계시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의 물결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고 내 사랑의 흐름에 전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찬양하며 칭송하고 내 목표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에 언젠가 도달하도록 돕고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뜻도 갖지 않게 된다. 그들은 쉬지 않고 사랑을 행하고 그들의 원래의 목적인 내 뜻 대로 창조하고 역사하게 된다. 내 뜻이 이제 그들의 뜻이 된다. 왜냐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물의 근본 입자는 사랑이다.

B.D. No. 2764

1943년 6월 4일

세상은 무에서 창조됐다. 이런 사실은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다. 하나님의 의지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넓은 우주에 보이는 창조물로서 인간의 감각에 제시되는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세가 창조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땅의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기력하고 의지가 연약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세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가까스로 다가가는 일이 비로소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창조하는 권세는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형체가 되게 하는 실체이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유일하게 의지만으로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생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의 의지를 통해 존재임을 보여주는 창조하는 권세는 무한한 힘의 근원이다. 왜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의지가 이런 또는 저런 형체를 입도록 정한 것들을 힘이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그들의 성질과 그들의 목적이 모두 다 아주 큰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한 목적을 섬겨야만 한다. 왜냐면 지혜로운 창조의 힘이 생각이 없이 어떤 것도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창조의 힘은 사람 주변의 모든 것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존재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의 지혜를 깨달을 지의 여부는 더 깊은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아야만 하고, 자신의 이성을 올바른 방법으

로 사용해야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영원한 창조주에게 향하게 해야만 한다. 이로써 힘이 그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고, 그가 자신을 둘러싼 것들의 합목적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한다. 그가 각각의 창조물을 더 깊이 다룰 때, 그들의 사명을 헤아리려고 할 때, 즉 이 창조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해답을 얻기를 갈망할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단지 자신 안의 영이 자신 안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가 될 것이고, 이제 또한 모든 창조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이 계시될 것이다.

(1943년 6월 4일) 그러므로 자체가 물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물질이 된, 모든 창조물의 근본 입자는 사랑이다. 사랑은 영적인 힘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써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에테르와 같은 것이다. 영원한 신성의 성품 자체가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창조물의 근본 입자이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영원한 사랑의 발산이고, 이로써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다.


인간과 인간의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들이 가진 가장 거친 형체 안에 있는 힘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원래의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생성되었고, 무한 가운데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자유의지를 가진 원래 초기에 창조된 영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추구했고, 이로써 그들의 원래의 성품을 잃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뜻과 하나가 되었고, 원래의 성품을 되찾기 위해 인간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창조물 전체의 목적이자 목표이다. 하나님의 힘은 건설하고, 조성한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힘은 부수고 파괴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형체가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깊은 사랑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단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 왜냐면 원래는 사랑이었던 그의 힘이 그의 의지를 통해 반대로 바뀌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잘못된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사랑이 유일하게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는 눈에 보이는 창조물을 절대로 생성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권세는 단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온전한 존재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통해 이런 권세를 빼앗겼다. 왜냐면 이로써 그는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하는 힘인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영적인 존재를,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될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든 창조물을 영적인 에너지가 모인 장소로 봐야만 한다. 영적인 에너지는 모든 창조물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끊임없는 활동으로 증명되는 생명으로 나타난다. 즉 이런 창조물 안에서 역사하는 힘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의 근원은 서로 다르고, 창조물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자주 보여준다. 하나님 자신이 힘의 원천이고, 이런 원천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면, 대부분 부인한다. 사람이 실제 이런 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자신 안에 근거를 둔 것으로 여긴다. 왜냐면 이성의 생각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고려하고,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영적인 무지함이다.

우선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그런 힘이 없으면 존재에게 생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힘은 또한 다른 모든 창조물 안에도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를 감싸는 겉형체 처럼 창조물이 죽은 후에 서서히 분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창조물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창조물은 반드시 어딘가에 출발점이 있어야만 하는 영적 힘의 운반자이다. 왜냐면 이 힘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힘은 실제 그릇 안으로 흘러갈 수 있거나, 그릇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창조물이 생성되고 없어지는 일은 이제 이런 생명력의 유입과 유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러므로 이 힘은 어딘가에 출처가 있어야만 한다. 이 출처가 힘의 중심이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자신이다.

창조물 자신이 창조물을 살아있게 하는 힘의 생산자라면, 창조물은 창조물으로써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왜냐면 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도 힘의 제공자와 상관이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써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해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 자신이 사는 동안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힘은 영원히 파괴시킬 수 없고, 분해시킬 수 없고, 사람은 이런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으로써 이미 불멸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힘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이 힘은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그릇에게 제공이 되고, 그럴지라도 원천으로부터 제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에서 죽음과 출생이 즉시 서로를 대체해야만 하거나 또는 인간의 죽음이 동시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힘의 근원을 항상 깨달아야만 한다. 힘의 근원으로부터 일정한 법칙에 따라 힘이 발산되고 각각의 힘을 받는 그릇에게 제공된다. 창조물 가운데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힘을 받는 그릇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모든 창조물은 힘을 가진 존재이고, 이 힘을 힘의 근원으로부터 받고, 이로써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된다. 즉 창조물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해 해당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계속하여 힘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힘의 원천을 어떻게 부르든지, 어떻게 상상을 하든지, 그가 단지 힘의 원천을 인정한다면, 모든 피조물이 이 힘의 원천에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은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유지하게 하는 힘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절대로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힘은 항상 영원히 있는 그대로 유지되고, 변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힘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힘은 존재하고, 스스로 소멸될 수 없다.

창조물 가운데 끊임없는 죽음과 끊임없이 사라지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힘이 빠져나가는 일에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 즉 이 힘이 또한 한때 창조물에게 흘러 들어 갔어야만 한다. 그러나 힘의 근원을 피조물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힘의 근원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최고로 온전하고, 충만한 힘과 권세와 사랑과 지혜를 가진 존재이고, 이 힘은 자신의 사랑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충만한 계획에 따라 쉬지 않고 흘러간다.

아멘

모든 물질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B.D. No. 4032

1947년 4월 29일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어떤 존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할 수 없는, 즉 어떤 의미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강요받는, 가장 굳은 물질을 거처로 할당 받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물질이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의 의지를 알고, 그의 의지에 따라 그에게 걸형체를 주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활동은 생명을 의미하고, 활동하지 않는 존재는 죽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걸형체인 물질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안에 어떤 존재가 거한다. 이 존재는 굳은 걸형체를 지속적인 짓눌림으로, 사슬로 느끼고, 그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저항을 포기하도록 이끈다. 물질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즉 성장과정을 비로소 시작한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존재는 마찬가지로 단지 섬기는 일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은 이미 더 성장한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가 되는 일이고, 이런 걸형체가 그가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의 자원하는 자세로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는 의지를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자신도 걸형체를 제공받고, 이 형체 안에서 자신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용을 받는 정도를 서서히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정은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그러므로 물질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물질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물질에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연합하고, 항상 더 온전해지고, 더 커지는 형체로 나타나는, 항상 더욱 온전해지고 더 큰 형체가 될 때까지 성장의 과정이 이제 계속되어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가 소위 죽은 물질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의 상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 가운데 머물고, 그러므로 그들 주변 환경의

변화나 그들의 걸형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영원을 아는 지식으로 볼 때, 물질은 저항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영적인 존재가 물질의 바깥 가장자리를 살아있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끝없이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외부에서 인간의 눈으로 희미하게 깨닫을 수 있다. 반면에 물질의 내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의지와 권세가 개입하여 물질을 파괴하거나 파괴당하게 할 때까지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내면의 영적인 존재도 원하면, 자원하여 빛을 향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영적인 존재가 빛으로 향하는 길을 언젠가 찾으면, 존재는 빛을 향해 나간다. 왜냐면 굳은 물질도 또한 빛이 주는 유익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저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은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의 영적 상태는 더 부드러운 형체 안의, 인간의 눈에 생명체가 보이는 그러므로 또한 그 안에 어떤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의 세계 안의 영적인 존재의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 왜냐면 이런 변형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일어날 지라도,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은 물질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단지 존재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걸 걸형체에 의해 묶여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어떤 묶인 것은 움직일 수 없고, 그러므로 사슬을 벗어날 때까지 죽은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입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물질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입자들은 연합하는 가운데 이미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떠나지 않게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이미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단지 영적인 존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에 의해 무기력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짐이 되는 묶임을 거부하거나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물질이 파괴되면, 영적인 존재는 물질을 벗어나 다른 형체 안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유를 사용하거나 행복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파괴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다면, 영적인 존재는 그에게 계속 성장을 의미하는 변형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인간의 악한 의지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파괴인 경우에는 영적인 존재는 그 안에서 견뎌온 고통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체를 다시 찾는다. 왜냐면 모든 영적인 존재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의무의 법칙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로 보아야만 한다. 물질이 어떤 유용한 일을 보여주는 동안에는,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아직 사용될 수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물질이 이제 사람들에게 의해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사용이 되면, 사람은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를 돕는다. 즉 영적인 존재가 위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하다. 왜냐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생명의 상태가 되게 하고, 생명은 단지 특정한 영적 입자들이 함께 역사하기 위해 연합이 된 후에 부드러워진 형체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이 성장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영적인 입자의 걸형체의 변형으로 여겨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형으로 활동하는 상태인 생명의 상태가 되기까지, 이로써 형체 안에 거하는 혼의 입자들이 증가하여, 비록 인간 혼은 모든 혼의 입자들이 하나가 된 혼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초기에는 오랜 시

간이 필요하다. (1947년 4월 28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을 영의 존재들에 의해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혼의 축소형이고, 수 없이 많은 혼의 축소형들이 인간의 혼을 형성한다.

물질의 입자들이 성장하여, 그들 자신이 이제 존재로써 자신과 같았던 굳은 물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면, 물질 자신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의무의 단계에서 두가지의 성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번은 물질로써, 그런 후에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존재로써 거치게 된다. 단지 두번째 단계는 빠르게 이뤄진다. 왜냐면 물질이 완전히 분해되는 일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이다. 물질이 쓰임 받는 동안에는, 즉 유용한 목적을 가진 물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빠져나가지 않고, 존재는 단지 오랫동안 활동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고통을 겪는다.

만약 영적인 존재가 더 많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걸형체 안에 거한다면, 걸형체는 또한 더 빠른 분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면 걸형체의 입자들이 이미 더 성숙했고, 곧 자신 스스로가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 걸형체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영적인 존재는 모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는 마지막 단계로써 인간 혼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의 혼은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주 예술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너희가 순수한 영의 존재로써 너희 자신의 혼을 관찰할 때, 너희는 바라보는 일과 놀라는 일을 멈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에 관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에 관한 깨달음을 준다. 이로써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름 받은 너희가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게 하고, 너희가 높이 성장하는 과정을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너희가 요청을 받는 경우에 설명해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지식은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야 한다. 이로써 그들이 그들의 혼을 형성하는 일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혼에 대한 큰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혼의 이 전의 끝없이 긴 여정을 알아야 한다.

아멘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B.D. No. 6727

1957년 1월 3일

이 땅의 창조물들을 거쳐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성장 과정으로 여긴다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되는 일에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린다. 굳은 물질은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존재를 포로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식물과 동물의 세계의 더 유연한 걸형체는 영적인 존재를 훨씬 더 빠르게 자유롭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다음 걸형체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성장과 쇠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로 존재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식물과 동물의 세계의 창조물 안으로 육신을 입게 되면, 인간으로 마지막 육신을 입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굳은 물질은 해체되지 않은 가운데 자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왜냐면 전적으로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가 굳은 물질 안에서 반발을 포기하도록 굳은 물질을 영적인 존재에게 거처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아직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묶인 상태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사슬을 깨려고 시도한다. 사슬을 깨는 일은 항상 단지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올바른 때가 되었다고 여길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굳은 물질이 부서지고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를 의미하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과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굳은 물질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굳은 물질이 사용되면, 영적인 존재는 의무의 법칙 아래 섬기는 일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걸형체가 분해될 때까지 다시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는 항상 더 자유롭게 된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항상 영적인 존재가 이미 섬기도록 언젠가 허용을 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활용되는 물건이 사용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섬기는 동안에는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즉 물건이 파괴되는 일을 통해 계속해서 섬기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물질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다음의 더 가벼운 걸형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인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는 새롭게 생성되는 같은 걸형체 안으로 들어가 중단된 성장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위해 항상 그 안에서 상응하는 섬기는 일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존재를 구별해야 한다. 영적인 존재 자신이 아주 굳어져서 물질이 되었고 그가 저항을 포기하는 일이 이미 더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위해 걸형체로서 자신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일로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런 물질적인 걸형체 안에서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걸형체가 영적인 존재에게 정해진 섬기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영적인 존재는 걸형체를 탈출하여 새로운 걸형체를 취하게 된다. 반면에 이전의 걸형체는 다른 섬기는 일을 마친 걸형체와 연결이 되어 그 안에서 이제 이미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를 다시 섬길 준비가 된 합당한 걸형체가 되면, 이전의 걸형체는 빠르게 또는 늦게 같은 과제를 다시 받게 된다.

또는 이런 합당하지 못하게 된 걸형체가 분해가 된다. 그러면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 것이고 그는 이제 스스로 그 안에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형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걸형체에게 섬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수록 물질 자신이 분해되는 과정이 더 많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의 성장단계가 이미 시작될 수 있고 원래 굳은 물질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이제 걸형체 안에서 이미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즉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의 해체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충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해체시켜서는 안 되고 해체시키는 동기가 다시 인류를 섬기거나 또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돼야 한다. 영적인 존재는 단지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아멘

□ 한이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창조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원래의 형체는 **□** 인 영적인 존재였으나 수천년에 걸쳐 이 형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한 영적인 존재가 형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했다. 이런 원래 창조된 것의 재구성은 이런 재구성을 통해 이미 영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모든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자신의 모양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 동일한 형태로 수천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지속적인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위를 향해 성장시켜야 할 영적인 존재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창조물이 영적 입자의 운반자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형체를 파괴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형체를 살아 있게 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유익하게 역사해야만 한다. 물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안의 영적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해 분해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겉보기에 모든 파괴의 역사는 비록 세상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수반하지만 단지 환영받을 일이다.

어떤 물질이 파괴되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영적인 존재 물질을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자신에게 합당한 혼의 성장에 돕는 이 땅의 새로운 형체에 합류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의 모든 새로운 출현은 무수히 많은 영적 존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바로 가장 작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창조물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짐작하지 못하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땅 전체를 멸망시킬 만큼 잔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묶임의 상태에서 영적 존재를 구원하는 이런 모든 재앙에 대해 무수한 존재들이 창조주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모든 창조물이 단지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모르고, 종종 모든 종류의 파괴를 통해 이 목적을 위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이 땅의 표면의 파괴를 초래하는 모든 재앙이나 기타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랫동안 포로 상태에 있었고, 이제 이 땅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영적 존재들에 의해 큰 기쁨으로 환영을 받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아멘

눈에 보이는 창조물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눈에 보이는 창조물에 대한 권세가 없다.

□ 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창조주의 뜻을 증거한다. 그러나 창조물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소유이다. 왜냐면 창조물의 입자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가 들어간, 즉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볼 수 있는 창조물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그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록 사람이 물질적 창조물으로써, 사람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 묶여 있고, 대적자의

자극을 깨달을 수 있는 의지의 요동으로부터 남김 없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혼은 이미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단지 하나님의 힘과 뜻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창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적인 고향인 나라에 거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눈에 보이는 창조물에 대한 권세가 없다. 창조물은 대적자와 연관된 입자들로부터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적자의 영향력이 창조물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 왜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창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그의 영적인 성장을 시작했다면, 방해받지 않고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적자는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 왜냐면 대적자에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허용이 되었고, 그가 이제 자신의 권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일은 이제 모든 종류의 창조물의 파괴를 목표로 삼도록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대부분 사랑 없는 삶의 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사람 안의 사랑을 없애고, 사람 안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게 하고, 자신의 이웃 사람들을 희생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려고 시도한다.

사람이 한번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리게 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 그러면 그는 점점 더 대적자의 영향력에 자신을 열고, 그에게 자원하는 이 땅의 종이 될 것이다. 물질 세계는 대적자의 나라이다. 다시 말해 아직 대적자의 의지를 가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물질 안에 묶임을 받고 있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존재는 의무의 법칙 아래 위를 향해 추구한다. 대적자가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켜, 존재가 다시 대적자에게 돌아오고, 대적자의 권세를 키우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 없음을 근거로 인간이 창조물을 파괴하도록 자극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사랑이 인간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고, 물질을 파괴하는 일이 단지 새로운 유용한 작품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즉 사랑을 행하는 일로 여길 수 있다면, 질서에 합당하게 물질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 높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고, 모든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를 위해 정해진 시간이 끝이 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이런 성장을 조기에 중단시키려고 시도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대적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한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존재가 위로 성장하도록 돕는 물질에 대한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행동이 대적자의 생각대로 창조물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는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대적자는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켜 위로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고, 동시에 사람이 대적자의 의지에 순응하게 함으로 이 전의 그의 모든 성장과정을 무효로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게 한 원인인 대적자에게 속하게 하면서, 사람을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대적자는 자신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즉 자신의 이전 유혹자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동시에 그가 섬기는 이웃 사랑으로, 물질을 고의적인 파괴로부터 보호하면서, 언제든지 물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즉 형체에 따라 사람과 짐승이나 또는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그들의 형태에 맞게 섬기면서, 물질을 유용한 물건으로 변형시키면서, 자신 아래 속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면,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로 이런 대적자의 계획을 파괴할 수 있다.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작품에 지혜로운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과 지혜로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의 손에 의해 단지 이웃에게 최선이 되게 하는 창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나 인간의 손에서 비롯된 다른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의 계속되는 성장을 보장한다면, 단지 그가 자신의 도움을 주는 손길을 펼친 것이다. 모든 종류의 고의적 파괴는 말할 수 없게 수많은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키고,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자신의 성숙한 정도나 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이 다시 형체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중단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복수를 하거나,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자주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사람의 혼에게 역사하여, 짐을 지운다. 그들은 혼이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게 하고, 혼 안에 충동과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혼의 높이 성장하는 일에 심하게 해를 끼치고, 혼의 원수가 성공하게 만들어 혼의 원수를 기쁘게 한다. 왜냐면 혼의 원수는 인간 혼을 얻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유혹으로 혼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고, 자신의 일을 통해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이다. 유혹자는 절대로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창조의 일. 굳은 물질. 자연환경. 식물.

B.D. No. 0864

1939년 4월 15일

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역사에 모든 세력이 물질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창조주가 더 높은 성장을 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이 살아 있게 하는 일을 한다. 창조의 유일한 목적은 그 안에 포함된 존재들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창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을 통해 더 다양해질수록 그 안에 육신을 입은 존재의 수가 더 많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에 셀 수 없게 많은 형태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다양한 형체 안에서 존재가 모든 방향으로 성장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만 하고, 이 능력으로 모든 형체를 입은 곳에서 모든 과제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함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작품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추구하는 존재들에게 가장 다양한 요구를 하는 사명을 받았다.

모든 이런 존재는 현재 거하는 형체를 즉시 떠나고 싶은 충동이 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일을 증가한 추진력으로 수행한다. 모든 형체 안에 체류하는 기간이 제한되어있지만, 이 기간은 매우 다르다. 굳은 물질 안에서 존재는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묵임을 받은 가운데 있고, 해방될 때까지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견뎌야 한다. 이로써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해방을 기다렸다가, 대부분이 그들 안에 모든 물질로부터의 해방을 보장해주는 식물과 동물의 세계로 가려는 욕구가 커질 때까지, 구속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 중에 거한다.

이 땅 가까이 다가가려는 욕망은 모든 종류의 풍화작용과 비가 내리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지금까지 대기에 있던 존재들이 이 땅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통해 풀과 식물과 꽃 속으로 침투하여 식물의 세계를 통과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일은 차례로 끝없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나 무수한 변화를 통해 모든 형체 안에 체류를 단축해나간다. 이로써 자체로 상당히 증가한 존재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 후에, 동물의 삶을 살면서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항상 더 큰 형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이다. 이를 아는 지식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전생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이 그에게 준 마지막 사명을 그가 성취하지 못함으로, 이 끝없이 긴 이전의 형성의 과정이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된다면, 자신이 이 땅의 삶에서 짊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측량해볼 수 있고, 이제 한 혼으로 전체가 통합을 이룬 영적 존재들이 이전의 모든 기간을 헛되이 살았음을 알게 되는 일이 사람에게 책임감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이 땅의 자신의 임무를 남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물질로부터 자신의 혼을 최종적으로 해방하기 위해, 모든 의지와 모든 힘을 드릴 것이다.

아멘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해충들과 잡초들.

B.D. No. 7098

1958년 4월 20일

 든 창조물 가운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한 창조물의 올바른 목적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자주 왜 이것이나 또는 저것이 창조되었는지 질문한다. 왜냐면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어떤 목적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언젠가 일을 행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 능력이 나타나는 효과에 있어 그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한가지 설명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떨어진 간격은 반항의 정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산인 영적인 존재는 비록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성장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무 단계에서 저항을 적게 줄인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성장 과정을 지속하고 새로운 형체를 입고 다시 말해 항상 서서히 일을 행하게 허용받는다. 그러나 이런 행하는 일이 영적인 존재의 저항에 합당하게 이뤄진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공개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섬긴다. 너희가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의 해충들을 모든 독충이나 또는 독이든 식물들을 생각하면, 너희가 바로 자연의 창조물들 가운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또는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체로써 그 안에 갇혀 있는 영적인 입자들에게 영화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창조물의 작품이 비록 너희가 이런 교류를 관찰해볼 수 없을지라도 다시 다른 창조물들이 유지되게 일부는 큰 생물체의 양분으로써 식물의 세계의 땅의 거름으로써 섬긴다.

그들은 다시 사람들이 이겨야 할 인내의 시험이던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생성한 모든 것에 대한 합리적인 자세이든 많은 시험이 요구되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준다. 어떤 것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작품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일이 결정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세 대한 그의 믿음이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 경외심을 갖게 해주는 일이 결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세를 의심한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에게 원래 창조된 영들이 분해가 된 입자들에게 모든 물질적인 형체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 받아 곁형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형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알게 해줄지라도 그러나 의무의 법칙 아래서 서서히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것이 이미 너희 사람들이 모든 창조물의 작품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 보게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아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진실로 권한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면, 너희는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모든 의심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거부감을 비 호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연에게 정해진 바와 반대가 되게 지원해서는 안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존재가 증명할 수 있게 해를 끼치면, 너희는 이에 대항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끝내야 한다. 이런 창조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살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너희가 그들이 사는 기간을 줄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적인 입자가 항상 새로운 형체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가졌던 저항이 줄어들면, 영적인 존재가 부드러워져 자원해 섬기고 그러므로 서서히 위로 성장해나가는 정도가 되면, 섬기는 역할을 하게 허용받는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도 다시 말해 너희 혼 안에 이런 과정을 가야만 하는 입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 눈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는 모든 것을 올바른 질서로 인도할 줄을 안다. 왜냐면 그는 단지 그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목표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죽는 일은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죽는 일이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다 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각각의 창조물이 쇠하는 일은 동시에 새 생명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형체를 벗어나자마자 해체가 되면, 마찬가지로 자신을 분해하는 다른 걸형체와 연결을 통해, 옛 형체로부터 어떤 새로운 걸형체가 생성되게 하고, 그 안에 탈출한 자신과 같이 성숙한 영적인 존재들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걸형체가 살아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옛 창조물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된다.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은 영원한 순환이고, 이일은 계속되는 더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은 단지 너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는 불멸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과 영적인 존재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 자신은 새로운 변형을 구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그런 변형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이 땅의 물질이 된다. 그런 변형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실제의 생명이 시작되고, 이 생명은 절대로 중단 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영적인 존재의 형체를 거치는 순환은 영원에 영원토록 지속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기간은 자유한 상태의 끝없는 영원에 비하면 덧 없는 한순간 일뿐이다. 모든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이런 자유한 상태를 추구한다. 반면에 자유로운 존재들은 보이는 존재들을 돕는다. 다시 말해 보이는 존재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돕고,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따라서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볼 수 있는 창조물을 생성한다. 이런 창조물이 생성되게 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 활동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진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종류의 창조물을 창조하고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은 다시 영적인 존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향한 사랑과 가장 깊은 지혜로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생성되게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창조물의 출현과 사라짐은 또한 일정한 규칙성을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지혜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어떤 창조물도 계획이 없이 또는 의미와 목적이 없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창조물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최고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시적인 것의 사라지는 일은, 생성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를 위해 필요하고, 성공적이 되야만 한다. 사라지는 일은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변화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력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의 지속되는 변화만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 자체가 계속하여 증가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일은 형체를 벗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같은 상태의 존재들과 결합하므로 일어나고, 그러므로 그들이 거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걸형체가 항상 필요하다. 이런 일은 다시 같은 성숙한 정도를 가진 존재들의 영적 결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보이는 창조물이 해체되는 일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 영적인 잠재력의 연합을 의미하고,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하는 일만큼 필요한 일이다.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이미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의 사랑을 통해 성장할 모든 가능성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다시 돕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하여 변하는 볼 수 있는 창조물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끊임없는, 생성되고, 사라지는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않은 모든 존재가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 끊임없는 걸형체의 변화를 통해, 항상 계속되는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면, 존재들이 비로소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초기 시대의 아담 이전의 인류. 책임.

B.D. No. 2513

1942년 10월 16일

이 땅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생명체의 거주지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따라서 이 땅의 실제 과제인 영의 양육장소에 합당하게 되었다. 이런 성장기간 동안 생명체는 아직 다른 종류였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면, 발전 과정 중에 있는 이 땅에 적응이 된 형태였다. 성장 단계는 아주 많은 단계였고, 특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땅의 표면에 생명체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체의 성장이 더 진행될수록, 더 많은 종류들이 생겨났고, 이렇게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이 땅에 배정된 생명체와 이 땅의 걸 형제 모두의 성장이 진행되었다.

이런 성장과정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장과정이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에게는 묶임을 의미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의 안과 표면과 이 땅 위에서 묶인 가운데 자신을 먼저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성장기간 동안에 영적인 존재들은 시험을 통과하고, 서서히 생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삶의 조건은 훨씬 더 어려웠지만 생명체는 자신을 관찰시키고, 서서히 현재의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의 종류로 성장했다.

그는 아직 묶임을 받은 존재였다. 다시 말해 존재는 본능에 따라 행했다. 말하자면 그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이 없이 어떤 면에서 아직 인도를 받았다. 이런 존재의 걸 모습은 사람을 닮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동물 단계에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채 모든 일을 본능적으로 행했다. 이런 존재는 아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아직 존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들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지능의 지배를 받는 의무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았다.

이런 생명체들은 이제 이 땅의 표면의 원시적 상태에 합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번식하고, 그들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이 땅의 표면의 변형을 가속화하여, 이 땅의 표면의 더 많이 성장한 생명체를 살게 하는 일에 적합하게 만들면서,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진 최초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까지 이 땅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실제 이 땅에 육신을 입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대로 의식적인 삶을 살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인간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특정한 정도에 도달했고, 이런 능력에 따라 인간은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고, 그에게 또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멘

모든 형체를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소형의 우주)

B.D. No. 0716

1938년 12월 19일

저 세상의 친구들이 너의 갈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충만한 사랑으로 너에게 향하고 있다. 이제 받으라: 세상은 영적인 잠재력을 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높이 성장하게 하는 단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성장하는 일은 단지 모든 종류의 저항에 부딪혀야만 하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이 이러한 저항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 땅에서 또는 수많은 다른 행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체들에게 짐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써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 공급받는 능력을 통해 생명체 안에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써 계속되는 성장은 항상 생명체가 얼마나 자신 안에 거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생명체에게 주어진 일을 일찍 수행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영적인 지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계속되는 성장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어떠한 형체 안에서 생명체가 가장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 질문에 대해 항상 단지 모든 형체를 거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혼의 입자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끝이 난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형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모든 혼의 입자들이 존재하기까지 계속된다.

사람안에 세밀한 동요와 가장 섬세한 느낌들은 단지 모든 세밀함으로 구성된 혼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혼은 다시 가장 세밀한 혼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의 입자들이 이제 구성된 혼에게 가장 예민한 느낌과 감각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작은 창조의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의 섬세한 구성원이 없다면, 생성된 그리고 아직 생성되고 있는 기적의 작품을 향한 감각이 사람에게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그 자신 안에서 이미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창조물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작은 구성요소를 자신 안에 가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입자들이 자신의 혼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밖에 있는 입자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다시 작은 생명체는 어떤 종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갖게 한다. 이 질문은 작은 생명체가 다시 더 작은 생명체들의 모든 입자들을 자신 안에 담고 있고, 그러므로 작은 생명체의 구성원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훨씬 더 성숙한 모든 것을 순전히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체 안에 입자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지배한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이러한 창조의 가르침 안의 중요한 깨달음의 지식을 통해 모든 다양한 사람의 본질을 비로소 깨닫는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유익하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최고봉임을 깨달을 수 있고, 사람 자체가,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이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예술작품이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만을 위해 이렇게 지혜로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관찰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광물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원자로써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의 작품이 가장 섬세하게 축소가 되어 사람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는 외부와 세상으로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 안의 저항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외부에서 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이 사람에게 가장 큰 저항력을 갖도록 자극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환경도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서로 다른 혼의 입자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아야 한다. 단지 이를 통해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고, 혼이 빛나는 높은 진리에 접근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존재들이 가장 작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모든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존재들을 담고 있는 사람도 똑같다.

이 일은 항상 먼저 그의 혼의 입자들을 영화 시키는 일이다. 혼의 입자들은 자신의 고유의 일을 하고, 아직 지독하게 반항을 하는 가운데 있고, 혼의 입자들이 전에 가졌던 형체 안에서 그들에게 한때 주어졌던 이 땅의 과제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을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많은 연약함과 실수와 덕스럽지 못한 점과 싸워야 할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혼 안에 묶여 있는 입자들의 특성이 항상 또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의 걸형체인 육체에게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에 대항하여 가장 크게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실제 영화가 되어 모든 위험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위해, 모든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만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은 실제 자주 자원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음을 받아들여라: 한때 내가 존재로 발산시킨 힘을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켰고 이런 존재가 분해 된 상태에서 느린 성장 과정을 시작했다. 영적인 입자가 내 의지에 의해 압축이 되어 물질이 되었을 때 서서히 형체를 입은 영적인 입자들에게 이런 일이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요동이었다. 이런 물질들은 아주 많은 서로 다른 종류였고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내 사랑과 지혜로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창조물 안에서 성취될 구원계획을 세웠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도록 자극해주는 일이 내가 창조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서로를 필요로 해야만 하고 이로써 느린 성장 과정이 가능하게 된다. 창조물의 초기에 섬기는 기능을 너희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고 창조물이 이미 굳은 형체를 입었을 때 비록 이런 창조물들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

모든 활동은 생명을 증거하고 모든 활동은 변화를 가져와 형체들이 계속하여 변화되어 항상 더 큰 창조물로 발전해 나가고 내 의지가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내 뜻대로 실행하게 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내 뜻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에 의해 창조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나 또는 형체가 된 힘이 느리게 성장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저항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고 이런 일이 비록 내 의무법칙에 의해 일어나지만 섬기는 일로 나타나고 저항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광물과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의 단계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하여 걸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존재들이 다시 모여 더 큰 형체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섬겨서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한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 이제 인간 안의 혼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작은 생명체와 가장 작은 생명체들이 죽은 후에 모여 더 큰 걸형체를 입게 되고 성장 과정을 계속 하게 된다. 내 사랑과 지혜로 항상 특정한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체가 창조 된다. 너희는 자연 가운데 작은 생명체에서 항상 점점 더 커지는 생명체로 성장하는 일을 본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형체를 새롭게 창조해야만 했다. 이런 형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이 전의 형체와 유사하는 되는 일은 항상 내가 창조한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원한 계획은 정해졌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피조물을 이미 알았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 종류의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각각의 피조물이 자신의 영적인 입자를 성숙하게 만들수록 창조물은 항상 더 커졌다. 이를 신체가 커지는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생명체의 특성들과 그의 기능들과 그의 능력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내 끝

없는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작품이었고 그들은 번식하지만 그러나 창조물은 항상 내가 창조했을 당시의 상태로 머문다.

어떤 생명체도 자신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변화나 또는 계속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역사는 생명체가 생성되었을 때 내가 창조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인간과 유사한 모든 존재들도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었고 그들이 내 전능한 능력의 작품으로 창조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런 창조물들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더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내 의지를 통해 항상 점점 더 인간에 유사한 걸형체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창조는 항상 내 의지에 기초한 역사였고 이런 역사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존재가 자연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이런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물로 여길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내 전능함과 사랑과 지혜로부터 나온 고유한 창조물로서 이 땅에서 높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아주 똑똑한 짐승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는 존재로 양육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짐승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인간이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절대로 서서히 갖추게 할 수 없고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한 피조물이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특성이 아니고 인간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내 의지와 내 권세로 생명으로 생성한 고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창조의 작품인 인간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들이 이미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느린 성장을 마쳤을 때 비로소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왜냐면 인간은 타락한 원래의 영을 혼으로 이제 자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이라는 말은 항상 단지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거나 또는 위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당 된다. 반면에 물질적인 창조물은 항상 창조의 역사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내 의지가 이런 걸형체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물질적인 창조물이 걸형체로서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이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

피조물이 아직 자신 안에 인간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존재를 자신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 뜻은 어떤 피조물도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 자체가 내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이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입자. 이 땅과 영계의 성장과정.

B.D. No. 5198

1951년 8월 27일

시 판받은 영적인 입자를 물질로 이해할 수 있다. 물질 안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영적인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걸형체인 물질 안에

같은 이런 영적인 입자는 이제 항상 성장과정에 있는 같은 입자들끼리 연합하여 각각의 창조물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혼의 입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창조물 안에 즉 굳은 물질과 식물과 동물 안에 이런 혼의 입자들이 들어 있고, 혼의 입자들은 새로운 걸형체를 이루기 위해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걸형체는 항상 점점 더 인간의 걸 모양에 가까워진다.

혼의 입자들이 모든 창조물을 거친 뒤에 다시 모여, 어떤 걸형체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기 위해 정해진 과제가 부여된 인간의 혼으로 걸형체를 입기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혼을 둘러싸고 있는 걸형체이고, 혼은 이제 혼으로써 혼 안에 있는 영적인 입자들을 성숙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증거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모든 혼의 입자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단지 성장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수많은 각각의 작은 혼의 입자들의 특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다. 즉 모든 추진력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일이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려는 의식으로 변화돼야만 한다. 이 일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혼에 대한 작업이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일은 실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혼이 이 전의 육신을 입는 동안 붙어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러므로 물질을 향한 갈망을 버려야만 하고, 모든 짐승과 같은 충동을 극복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모든 충동들은 이 전의 성장기간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전의 성장과정의 특징으로 혼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모든 뒤에 남아서 나타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고, 성장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모든 것인, 영적이고 신적인 속성인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긍휼과 화평과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 모든 성품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이 땅의 삶에서 이 사랑을 최고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제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혼은 아직 질서 안에 거하지 않는, 질서 안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럴지라도 혼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면 혼이 자유의지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혼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혼이 자신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충동으로 혼란하고 정리되지 않은 입자들을 통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의지가 없으면, 영이 정리하는 개입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전의 형체 안에서 생긴, 드러나는 각각의 특별한 성품들이 반대로 바뀌면, 이제 질서가 세워진 것이다. 왜냐면 성장과정 초기에 있는 영적인 입자들은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온전하게 되는 일이 걸형체를 입는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형체 안에서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는 특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되지 않고, 반대로 변화돼야만 한다. 그래서 단지 사랑과 관용과 겸손과 온유와 공의와 긍휼이 그 사람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려고 애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기까지, 이제 사람의 혼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그가 영계에서 영적인 존재로써, 그러나 그의 성장을 놀랍게 빠르게 촉진시키는 빛과 능력을 소유한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 육체의 물질적인 걸형체를 벗어날 수 있기까지 그의 성품이 변화돼야만 한다. (1951년 8월 27일)

내 영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나 너희가 저항해서는 안 되고, 너희를 인도하게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이미 가진 지식을 기초지식으로 영접해서는 안 된다. 이 기초 지식에 내 계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내 계시를 받아야만 하고, 너희 지식과 비교해야만 한다. 두 지식이 동일하면, 내 계시가 너희 지식을 보완해줄 것이고, 너희의 선 지식은 영에서 근원되어 나온 것이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진 것이다.

계속 전진하라. 영계에서 성장은 각각의 혼에 따라 다르다. 모든 혼은 어느정도 위를 향한 또는 아래를 향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또는 버려야 할,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시키거나 버려야 할 일은 항상 깨달음의 결과이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기 전에는 전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은 빛 줄기가 혼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그들이 비로소 역사하고, 높은 곳을 추구 깨달음의 빛이 주어져도록 중보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깨달음에 도달해, 이 땅에서 이미 혼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혼은 영계에서 많은 빛의 존재에 둘러싸여 항상 그들의 도움을 받고, 빠르게 높이 성장한다.

특히 혼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자신의 과제와 아직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런 깨달음은 온전하게 되기 위한 큰 한 걸음이며, 영계에서 빠르게 영역들을 통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런 깨달음이 없는 혼은 자주 아주 생각할 수 없게 긴 기간 동안 낮은 곳에서 머문다. 왜냐면 그가 먼저 지식을 가져야만 하고, 자신이 우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오랜 동안 이 지식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런 무지한 상태는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단지 사랑의 중보기도로 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혼에게도 빛의 존재가 함께하고, 그의 곁에 있지만, 그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가 눈치챌 수 없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게 성공적으로 역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이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과 정욕을 깨달을지라도,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이 도움이 이 땅과 영계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진지한 의도로 성장하기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 그는 확실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주님은 그의 힘이 부족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극복한 분으로써 싸움에 능력을 공급한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약한 상태로 머물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의 싸움을 쉽게 하고 또한 승리하게 한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영계에서 급히 예수를 찾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낮은 곳에 머문다. 이는 모든 혼이 사랑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사랑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영계에서 날개 단 성장을 보장받으려면,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이 영계에서도 추진력이 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은 절대로 높은 성장정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극복하기 위한 단 한가지

방법이 사랑이다. 왜냐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 자체인 분을 추구하고, 이 분이 항상 그를 돕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향해 달려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의무 단계의 상태. 인간으로 자유한 상태.

B.D. No. 7214

1958년 11월 24일

너희는 셀 수 없이 많은 형체를 거쳐서 항상 너희의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의무 단계 아래 이뤄졌다. 너희는 이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게 강요받았고 너희의 형체에 합당하게 이 일을 행했다. 이는 자유가 없는 자신에 대해 자유가 없는 영원한 법을 정한 분 아래에 있는 그럴지라도 사랑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해 선하게 되고 성공을 약속해주는 묶임을 받은 상태였다.

이처럼 이런 너희의 오랜 기간의 성장 과정은 확실하게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과정을 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항상 더 높은 형체로 바꾸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서는 특정한 성장 정도가 요구되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게 해주었다. 이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형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말해 빛과 능력과 자유의 상태가 되는 전적으로 영화되는 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머물거나 또는 다시 이미 극복한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 왜냐면 모든 일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뤄지고 성공이 보장되는 의무의 단계와는 다르게 사람이 자유롭게 행하고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로운 결정을 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제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을 증명하는 일만이 유일하게 존재가 모든 물질적인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지 빛의 나라에 합당하게 될지 또는 어두움의 영역에서 빛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될지 결정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로 어두움의 영역에서 빛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존재는 더 이상 단지 이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권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짧게 이야기해서 혼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를 깨달아야 하고 이 땅의 짧은 삶 동안에 성장할 수 있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위해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면 존재들에게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원래 초기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 위해 그들 안에서 다시 불지펴져야 할 것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바른 삶이 또는 잘못 된 삶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주는지 알게 되면, 너희가 너희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너희가 어떤 운명을 향

해 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 자신의 뜻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쉬운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너희에게 쉽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너희가 지나왔던 성장 과정의 때에 요구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너희의 성품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원래의 성품이 다시 나타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고 단지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자유와 빛과 능력을 넘치게 받을 것이고 단지 너희 육체를 그러나 너희 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표면상의 재물을 단지 일시적으로 희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자유의지가 완성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의무 단계 아래 있었던 끝 없이 긴 기간이 쓸모가 없게 되고 존재가 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질 위험 가운데 있다. 말할 수 없이 축복되기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마지막 귀환을 결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강요 가운데 이런 귀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마지막 결정을 위해 너희에게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너희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것 한 가지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 자신의 의지가 요구되는 일인 그가 단지 불을 피우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불씨가 사람의 심장 안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이전에 거쳐야만 했던 긴 성장 과정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이제 의식적으로 살기 위해 성공이나 또는 실패를 생각하면서 이제 원하거나 행할 수 있기 위해 이런 지식을 통해 책임감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삶은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영원히 지속되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주는 삶에 도달하기 위한 그러나 자유의지로 추구하고 얻어야만 하는 마지막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 및 물질적 창조물.

B.D. No. 3495

1945년 7월 23일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무수한 세계가 존재하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영적인 존재의 성장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살게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성숙한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물질에 묶여있고, 부분적으로 영에 묶여 이 세계들에 살고 있다. 이 세계들은 단지 물질적인 창조물이고, 그들의 과제는 영적인 존재가 살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서로 다른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물질이 필요하지는 않고, 영적인 존재가 세상의 물질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영적인 창조물 안에서 그들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는 그의 영적인 눈에 제공되는, 다양성과 종류와 사명들이 비교할 수 없는 창조물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성취시켜야만 한다. 이런 모든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는 자신을 시험

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빛이 충만한 정도에 따라 자신의 사랑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영적 창조물은 존재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세계에 있다. 이 땅을 미숙하게 남겨두면, 그일은 존재 주위가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어떤 창조물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창조의 기적은 성숙 상태와 함께 증가하여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을 반복해서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영적인 창조물은 훨씬 더 다양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항상 조성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자신의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가할 수 없는 지혜를 나타낸다. 영적인 창조물은 또한 파괴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창조물은 다시 온전한 빛 존재의 힘의 발산이다. 이 힘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또는 낮은 성장정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조성한다.

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창조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면 물질적인 창조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물질적인 창조물은 영적인 창조물로 대체가 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게 마찬가지로 가장 밝은 빛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존재를 둘러싼 걸형체가 더 단단하고, 거주지로 할당된 창조물은 더 물질적이다. 존재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이 땅을 떠나면, 영의 나라가 이제 그의 거처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 같은 물질적 창조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

(23. 7. 1945) 그의 영적인 눈 앞에 물질적인 창조물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창조물을 향한 욕망이 아직 너무 커, 혼이 스스로 생각을 통해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고 자신이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빛의 존재에 의해 생성된 영적인 창조물은 없고, 그러나 혼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속이는 거품을 형성한 것이다. 실제 혼의 영의 눈으로는 이를 볼 수 없고, 단지 이 땅을 향한 기억이 그들의 감각에 앞서 떠오르게 한 것이다. 혼은 또한 이런 형상을 절대로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형상이 존재가 이런 형상을 활용하기 원하면, 항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혼이 곧 자신의 창조물의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런 창조물의 목적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영적인 창조물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즉 영적인 창조물이 온전한 가운데 계속하여 성장할수록, 창조물이 존재의 영적인 눈 앞에 점점 더 온전하게 보인다. 존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창조물은 꿈에도 꾀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화 전능함을 증거하고, 또한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해준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존재는 힘의 받음으로 자신을 높이 성장시켜, 이로써 볼 수 있게 된 빛의 존재를 추구하고, 빛의 존재가 발산하는 빛의 충만함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는 대부분 빛이 없고, 빛의 존재의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주민들을 돌보는 일은 빛의 존재의 긍휼의 역사이고, 이 역사가 빛의 존재를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빛의 존재가 쉬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도록 자극해 주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 자체가 빛을 발산한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의 거주자가 서로 다른 성장정도를 가진

빛의 수령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두운 영역의 거주자의 받으려는 의지에 따라 자신의 빛을 비춰준다. 어두운 영역에서 빛의 세계는 빛나는 별로 볼 수 있고, 빛나는 별은 특정한 궤도로 빛이 없는 별을 돌고 있다. 빛을 비춰주는 일은 단지 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빛을 갈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형성한 물질 세계의 거주자들이 단지 이 빛을 느낄 수 있다.

혼의 성숙을 통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영의 나라에서 비로소 빛의 발산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영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온전한 영을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수많은 창조물들이 생성되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의 모든 창조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빛의 영역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고, 항상 그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한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모든 크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느끼고, 그의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아멘

물질적이고 영적인 창조물. 주민들의 활동.

B.D. No. 4405

1948년 8월 15일

보이는 세계는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 창조물 안에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가 영적인 존재가 걸형체를 강요로 느껴야 할,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로서 섬기는 형체여야만 하는 동안에는, 물질 세계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런 형체를 벗어나려는 욕구가 활동하는 원인이고, 이런 활동이 성장을 위해 다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재는 형체 안에서 자신이 정함받은대로 행하는 일을 통해 섬기고, 비록 의무의 상태에서 서서히 성장할지라도, 이런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한다.

존재가 어떤 형체 안에 묶여 있지 않았다면, 존재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고, 이로써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존재는 생명체로서 걸형체가 필요하고, 또한 그가 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을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면 활동하는 일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 항상 계속되는 활동이 조건인 인간의 단계에서 이런 변화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활동이 없는 상태는 이미 죽음의 상태이다. 비록 육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활동하지 않는 일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이 힘을 전적으로 빼앗게 된다. 왜냐면 활동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고 이에 합당하게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지 활동을 통해 높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높이 성장하는 일이 인간과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를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땅의 창조물 모두를 위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이다. (1948년 8월 15일)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들이 아직 구속되어야 하는 동안에는, 이 땅의 창조물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일에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창조물의 모형이고,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연약한 깨달음의 정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형체이다. 반면에 순수한 영적인 존재는 단지 성숙하고, 깨달음에 도달하고, 빛 가운데 육체의 눈처럼 모든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볼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창조물은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성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바라보는 사람이 단지 끊임없이 즐길 수 있고, 이 가운데 그는 그가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을 의식한다. 영적 창조물은 또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영적 창조물의 확장되는 일에 제한이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사람의 귀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 약속은 영적인 창조물을 바라볼 때 성취가 된다. 이런 창조물은 직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증거하고, 빛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가 접근할 수 있는 창조물이다. 이런 창조물이 순수한 빛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은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고 그러므로 창조물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비추는 빛의 출처이다. 그러나 빛이 발산되고 우주에 도달한다. 이로써 빛이 없는 물질적 창조물이 그들의 길을 가게 하고, 실제 빛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빛의 전달자로서 아직 스스로 빛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다시 말해 영의 나라에서 직접 빛의 광선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게 한다.

빛을 발산하는 창조물은 영적인 창조물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창조물은 이 땅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 반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는 단지 이런 영적 창조물이 발산하는 빛을 볼 수 있다. 영적인 창조물이 묵임을 받은 물질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시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담아야만 할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려면, 영적인 창조물이 형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창조물은 빛의 존재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주 공간에 놓이게 된다. 왜냐면 물질은 형체가 된 영적인 존재이고, 이 물질은 항상 어딘가에서 먼저 응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은 원래는 영적인 존재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다.

영적인 존재가 어느 순간에 형체를 입는 지는, 즉 물질이 생겨나는 지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물질적 창조물 가운데 살고, 그의 깨달음이 그의 성장정도에 합당한 존재의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이다. 존재가 빛의 존재로서 동시에 영적 창조물에 관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게 되면, 그가 비로소 물질의 창조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그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질문들이 그에게 풀리고, 영원한 창조주를 향한 그의 찬양과 찬송은 끝이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창조물이 없는 공간.

B.D. No. 6634

1956년 9월 2일



은 창조물이 존재하는 근거이고 모든 창조물이 생성되게 하고 존재하도록 보장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러므로 묶임을 받은 따라서 불행한 모든 영적인 존재가 구속받기 전에는 이 땅의 창조물이 중단되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보이는 창조물은 너희에게 단지 내 역사를 증명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영적인 창조물을 볼 수 없지만 이런 영적인 창조물은 또한 영적인 존재가 온전하게 되도록 섬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온전하지 못한 거주자인 동안에는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사랑이 또한 이런 영적 창조물이 생성되게 했다. 왜냐면 더 높은 온전함에 도달하게 하는 목적 외에도 이미 빛과 힘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빛과 힘을 내 뜻대로 창조하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내 사역과 역사는 끊임없이 사랑을 비취주는 일이고 내 사역과 역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일어난다. 사랑과 지혜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에는 가장 기적적인 창조물들이 생성되어야만 하고 존재들을 다시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존재들은 한때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로써 나에 의해 생성된 사랑의 역사가 존재들을 묘사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온전함을 버렸거나 또는 온전함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무한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이런 축복을 선물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행복한 혼들의 무리에 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형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성숙한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그들의 과제는 자신들의 성숙한 정도를 높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물은 끝없이 긴 시간 동안 존재가 보장이 된다. 왜냐면 성장하고 귀환하고 한때 자발적으로 버렸던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창조물들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들이 아직 무한히 많기 때문이다. 비록 단지 작은 성공을 이뤘을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마치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창조물이 제공되고 내 무한한 사랑이 이제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일지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본다.

나는 어떤 존재도 운명에 맡기지 않는다. 나는 한때 나를 떠난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향한 내 사랑의 갈망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했다. 가장 큰 저항도 단지 내가 증가된 추진력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왜냐면 내가 창조물을 통해 내 창조물에게 항상 영원히 유효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존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사랑은 아주 강해 지속적으로 존재를 끌어드린다.

이 땅의 창조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창조물이 한때 타락한 존재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주 큰 사랑은 거부당할 수 있고 존재가 가장 작은 성공도 하지 못하고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전적으로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를 세상적인 창조물이 나 영적인 창조물에서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가능하고 이런 존재가 전적으로 비어 있는 끝없이 넓은 공간에 거하고 전적으로 자신에 의존되어 있고 생명이나 사랑이 없는 곳에 거하지만 그러나 끝이 없는 고통이 되게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창조물이 없는 상태는 혼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다. 이런 혼은 모든 창조물을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혼이 이 땅의 존재하는 일로부터 어떤 유익도 얻

지 못했고 자신이 무에서 생성 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 후에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또한 혼을 위한 사랑으로 행하는 공흠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혼을 준비시켜 혼이 전적인 놀라움과 감사로 내 사랑이 이제 눈 혼의 앞에 생성되게 한 첫 번째 창조물을 다시 관찰하게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실패한 성장이 이제 영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종류이든 세상적인 종류이든 내 창조물은 끝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다시 내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내 사랑을 영접하고 이로써 자유의지로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성숙의 과정에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 필요하다.

B.D. No. 5401

1952년 5월 26일

내 나라는 아주 크고, 나에게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다. 이런 모든 세계는 단지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또한 언젠가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해방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땅의 물질 세계가 영화 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영적인 존재가 돌아올 때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이 땅의 끝없이 긴 길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너희 주변의 이 땅의 창조물을 살펴보면, 너희는 또한 아직 굳은 물질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런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의 과정이 끝나기까지 아직 영원히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나아가 내가 정한 질서 외에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을 통한 갑작스러운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서서히 성장하는 일이 영적인 존재가 스스로 나를 향한 저항을 포기하고 마침내 나와서 연합을 갈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대적자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이런 내 영원한 질서를 뒤집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에게 더 이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가 없고, 자신의 변화된 의지를 영적인 존재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도 그와 같이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생성되었고 또한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를 돌이키는 일은 단지 그가 굳게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는 영적인 존재를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상할 수 있고, 그에게 권세가 없고 힘이 없게 되는 일이 비로소 그의 의지와 생각을 바꾸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서 내 대적자의 의지에 따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아직 복종하는 동안에는, 그는 또한 나에게 대한 그의 저항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무한히 많은 창조물들이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섬기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창조물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동안에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창

조물 안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에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 대적자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므로 내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불행한 일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에게 저항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로써 새롭게 나를 떠나 타락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강화시키고, 그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한다.

사탄은 절대로 나에게 돌아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수단을 사용하여 그의 권세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이 그에게 옳은 수단이다. 그는 모든 곳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성장과정을 거의 끝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곳에 어두움을 전파하려고 한다. 왜냐면 빛이 그를 드러내고,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서 그가 싸움에서 패하기 때문이다.

구속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다. 영적인 존재가 아직 물질 안에 묶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시대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또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고, 단지 창조물들은 항상 더 부드러운 형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 안의 저항이 줄어들고, 항상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에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창조물들이 항상 새로운 구원시대를 의미하고, 이제 너희 사람들이 이 땅과 다른 별들이 파괴되고 변화되는 일들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내 지혜가 원래 초기부터 영원히 영원까지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혜와 사랑이 불행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원래 초기의 성품에 도달해야만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게 축복된 운명을 마련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멘

증거가 없는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에 대한 지식.

B.D. No. 6766

1957년 2월 19일

이 땅의 과정을 헛되게 간 일은 물질적 형체로부터 곧 자유롭게 될 혼에게 최악의 운명이 다. 그가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다시 한번 갈 수 없고 이런 인간의 단계를 맘대로 반복할 수 없고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리는 창조물 전체의 과정을 다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에게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해체시킬 수 없는 가장 굳은 물질 안으로 다시 묶임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 운명을 안다면, 즉 그들에게 이런 일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이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강제가 영적인 존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지식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전달 된 지식을 믿을 지 여부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의 삶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믿도록 절대로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끔찍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왜냐면 피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다시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이성의 지식에 의문을 갖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의심은 또한 정당한 의심이다. 왜냐면 아무도 그의 죽음 전과 후에 어떻게 될지를 이성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지식을 고려해야 하고 이런 지식이 사실일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인간에게 강요가 아니다. 왜냐면 이런 지식을 인간이 만든 지식으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즉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단계에서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없었던 능력이 있고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창조한 권세에게 선명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며 그들의 자유의지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잘못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 후에 끔찍한 운명을 받아드려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을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 종말이 임하면, 종말 전에는 항상 아직 가능했던 저 세상의 나라에서 성장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영적 지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종말의 때에 빛의 세계가 점점 더 자주 이 땅과 연결을 이루고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을 한다. 게다가 빛의 존재들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그들의 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종말과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의 사명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연관 관계와 가까운 종말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경고하고 또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고 지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맞이할 운명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의지의 강요 없이 일어나야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살 기회가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경고와 훈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도록 허용 된 시간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이 땅의 창조물 안에 묶여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자신의 완성에 도달하기 직전에 자유의지로 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또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모든 존재가 그의 의지대로 받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든 그에게 그의 의지대로 주어진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고 그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원히 부자유함이 없고 더 이상 고통스러운 속박이 없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아멘

□ 한 가운데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분은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의지와 의지의 방향을 T 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의지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랑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권세가 부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그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그가 무엇이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지라도 그는 너희를 의지의 자유 가운데 놔둘 것이다. 이 것만이 모든 일어나는 일과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지 언제 도달하게 할 지는 유일하게 너희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너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잘못이고 삶의 환경에 핑계를 댈 수 없고 또는 이런 환경을 너희에게 제공한 분에게 핑계를 댈 수 없다.

너희는 항상 생각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뿐만 아니라 대적자의 편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정도 서로 다르다. 이에 합당하게 그는 빛의 나라나 어두움의 나라에서 오는 생각을 영접한다. 그러나 단지 전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사는지 그들의 책임을 알려 줘야 한다. 그들은 생각을 통해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그들이 이제 자신의 의지에 합당하게 입장을 정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과제를 성취하는 것과 분만 아니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진리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면, 그가 스스로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관해 질문하면, 그들이 그들의 이웃들 편에서 올바른 설명을 받을 수 없으면, 빛의 나라로부터 직접 사람들에게 진리가 제공될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도 만약에 그들이 이웃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연약한 자를 죽이려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의 성장 정도가 그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정할 것이다.

그 자신이 선한 행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의 효과를 확인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동안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이 있다. 그에게 이런 느낌을 가질 능력이 없으면, 그는 아직 짐승과 같은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혼에게 정해진 육신을 입을 시점에 실제로 다가왔고 그러나 육신을 입을 성장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 그의 충동과 죄악 된 정욕을 이 땅에서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가르침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그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자주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이 땅의 과정으로 충분하지 못함을 그러나 타락한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가야만 함을 안다. 그러면 너희는 성장되지 못한 원시적인 깨달음 가운데 사는 그들이 행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해 너희가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는 너희가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시킬 수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설명을 받는다.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이미 물질의 창조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창조물은 존재할 것이다. 항상 또 다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계획은 가장 서로 다른 성장 단계에 있는 모든 타락한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항상 같은 시대에 서로 아주 다른 혼의 성장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 것이다.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알면, 너희는 모든 땅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올바른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첫 번째로 가는지 또는 너희가 현재 상태인 너희가 되기 위해 영원의 기간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서 과거의 기억이 지워졌지 때문에 너희가 이미 이전의 다른 창조의 시대에 존재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는 이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가 현재 아직 의심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너희가 자유의지로 버렸던 밝은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인가 빛과 능력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자연의 언어. 창조와 창조주.

B.D. No. 2834

1943년 8월 1일

자연이 너희에게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사랑과 전능함을 드러내는지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귀를 기울이고, 보라. 너희의 시선을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게 하라. 이를 통해 나의 조성하려는 의지와 나의 힘을 깨달으라. 나의 모든 창조 작품 안에서 나를 깨달으라. 이런 창조물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다양하고,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얼마나 현명하게 성취시키는 지, 각각의 창조물의 목적이 어떻게 전체 창조물을 유지하는 목적을 이루는지를 보라.

내가 자연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나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전능함과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이 땅

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물이고, 나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서 머무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끝이 없게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창조의 작품이 단지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은 단지 너희가 현재에 처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창조물로 성장시킨 예비 단계이고, 너희는 지금보다 무한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연을 관찰하고, 모든 자연 창조물에서 깨달을 수 있는 자연이 성장해 나가는 일을 보라. 가장 작은 존재가 나의 작품이고, 가장 작은 풀잎이 형체가 된 나의 생각이다. 모든 피조물이 내 의지에 순종하고, 내가 정해진 과제를 실행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장하면서 다시 인간을 섬긴다. 어떤 것도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은 없고, 나의 의지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이 나의 지혜와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창조의 모든 작품들 간에 연관관계를 알지 못해 나의 지혜가 너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자연의 경이로 항상 또 다시 표현되는 나의 사랑을 깨달라.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녹색으로 자라나고 꽃이 피는 지를 보고,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지를 보고, 너희를 위해, 너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 동일한 과정이 항상 계속 반복되는 지를 보라. 내가 가장 다양한 차원의 가장 다양한 형체와 사명을 가진 무수한 창조물들이 생성되게 했다. 너희가 눈과 귀를 열면, 너희는 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지혜가 너희에게 드러내야만 하는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창조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창조물을 유지하고, 돌본다. 이로써 너희의 심장이 창조물로 인해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나와 너희가 의심하는 나의 존재를, 너희가 부인하길 원하고 나의 작품이 스스로 생성되었다고 여기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

너희는 눈이 먼 것처럼 창조의 모든 경이로움을 지나친다. 너희는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는 창조물을 보지만, 창조물 안의 창조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실제 나타나는 효력을 보지만, 그러나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는 원인과 의지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충만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믿고, 모든 것의 기원을 알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창조물의 원래의 근원으로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의 지식은 단편적이다. 나는 자연의 모든 창조물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자연의 모든 창조물은 나 자신의 발산이고, 나의 의지가 형체가 된 생각이다. 자연의 모든 창조물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유일하게 내 의지가 너희가 보는 것과 너희를 둘러싼 것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내 의지와 나의 지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이 또한 너희가 이런 속성을 가진 한 존재를 믿고, 깨닫도록 가르쳐야만 한다. 이 존재는 자연의 기적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고, 너희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원하는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창조 작품인 너희가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게 만든 원인이다. 나는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자연 속에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창조물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창조주로서 나와 단둘의 대화를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질문에 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진리를 주는 존재로 인정한다면, 나는 진리를 향한 너희의 의지에 따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 원하면, 너희가 단지 나에 대한 생각을 위로 보낸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머무르는 곳에서 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로 하늘과 땅이 생성되게 한 창조주를 상기시키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가장 빠르게 찾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때 자신을 떠난 존재들에게 그들이 다시 자신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전해져야 하고, 너희가 스스로 이런 지식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창조물의 언어를 들어야 한다. 왜냐면 창조물의 언어를 통해 내가 나의 말을 듣기 원하는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